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온라인 범죄소굴’ 캄보디아·미얀마...“연간 피해 100조원 규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내 온라인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삼합회가 그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인 대상 범죄로 온라인 사기조직의 잔혹 행위가 드러나면서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조직에 관심이 쏠린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내 온라인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삼합회(三合會)가 그 핵심으로 꼽힌다.

16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미국 재무부, 미얀마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삼합회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납치, 인신매매, 감금, 고문, 사기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마카오 등에서 도박산업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중국 범죄단체들이 당국의 단속 강화 등으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감금된 인력은 온라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에 강제로 투입되고 있으며 저항 시 전기 고문이나 식량 중단 등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는 살해되거나 장기 매매에 이용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53개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확인했다며 정부와 경찰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125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태국 매체 네이션은 동남아 전체 피해 규모가 연간 500억~7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 중심이던 범죄는 규제가 느슨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미얀마 12만 명, 캄보디아 10만 명 이상이 범죄 조직에 의해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에 빠진 미얀마는 사실상 치안 공백 상태가 되면서 사기 조직의 활동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태국과 중국 당국이 전기·인터넷 공급을 중단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조직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 그대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AFP통신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미얀마 국경지대 사기 캠프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동남아 사기 조직이 이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까지 세력을 넓히며 마약 카르텔과 마피아 조직과도 연계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2023년 동아시아·동남아 국가에서 온라인 사기로 370억 달러(약 52조8천억 원) 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시편 55:23)

하나님, 동남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온라인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돌아보옵소서. 인권이 짓밟히고 수많은 범죄에 이용당하는 피해자들을 속히 구조해 주십시오. 또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사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정직한 자의 소산을 얻는 기쁨을 주옵소서. 스스로 파멸의 웅덩이를 향해 가는 범죄 조직들을 다스려 주소서. 자기 힘을 의지하여 헛된 재물을 탐하고 악과 거짓을 토해내는 인생들을 꾸짖으사 주의 주권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며, 불법에서 돌이켜 나아와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이란, ‘저비용 성전환 수술 관광’ 홍보

동성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란이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비용 성전환 수술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전쟁과 제재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내세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 관광을 내세우고 있다. 이란은 40여 년 동안 동성애자와 ‘성별 비순응자’(gender-nonconforming)들에게 신체를 변경하는 수술을 강요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지는 나라 중 하나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금지지만, “성별을 바꾸면 이성애자로 취급할 수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란의 의료 관광업체들은 호주와 미국, 영국 등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약 1만 2,000달러(약 1,650만 원) 이하의 성전환 수술 관광을 홍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같은 수술이 약 4만 5,000달러(약 6,200만 원)에 달한다면, 이란 내 일부 사설 병원에서는 7,000달러(약 960만 원), 국영 병원에서는 4,500달러(약 620만 원)에 수술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란은 성전환 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만,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시민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다서 1:11,21)

하나님, 법으로 금지하는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강요하며 성전환 의료 관광으로 불의한 샅을 취하려는 이란의 죄악을 빛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어그러지고 패역한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란을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란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 땅의 영혼들이 죄에서 돌이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 짐바브웨 여당, 대통령 임기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짐바브웨 여당 ‘자누-피에프’(ZANU-PF)가 에머슨 음난가그와 대통령의 임기를 2030년까지 2년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번 결의는 19일 전당대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83세인 음난가그와 대통령의 임기는 원래 2028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자누-피에프의 법률 담당 비서이자 법무장관인 지암비 지암비는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입법 절차를 통해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위헌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지도자 제임슨 탐바는 “짐바브웨는 헌법에 따라 통치되는 민주국가이며, 헌법의 최고성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야권 인사 잡 시칼라는 “이번 조치는 민주 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악랄적 정치 행태를 일삼아온 집권당의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음난가그와 대통령은 2017년 군사 쿠데타로 초대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를 축출하며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그 역시 37년간 장기 집권한 무가베와 같은 자누-피에프 소속으로, 정권의 핵심 체제나 통치 방식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편 80:7)

하나님,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으로 나라를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 고립에 빠뜨렸던 무가베와 같은 통치 방식을 행하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한 정의를 실행하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행하는 부패한 심령을 꾸짖어 주시고 이들의 어그러진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먼저 이 땅의 교회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짐바브웨에 비취주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독교 가정 자녀 2년 이상 격리...부모, 유럽인권법원 제소



루마니아계 기독교 부부 다니엘·비앙카 삼손이 학대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기독교적 양육 방식’이 극단적이라는 스웨덴 당국의 주장으로 자녀를 2년 넘게 빼앗겼다며 유럽인권법원(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이번 사건이 스웨덴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며, 자연, 권한 남용,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갈등이었다. 2022년, 딸(당시 10·11세)이 스마트폰과 화장품을 사달라고 했지만 부모가 나이에 맞지 않다고 거절하자, 딸이 학교에서 거짓으로 학대를 신고했다. 이후 딸은 신고를 취소했지만, 스웨덴 당국은 이미 조치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국은 신고를 근거로 부모를 ‘종교적 극단주의자’로 낙인찍고 아동 학대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법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두 딸을 국가 보호 체계에 남겨뒀다. 두 딸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위탁가정에 배치됐다. 부모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감시하에서만 자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두 딸은 수십 마일 떨어진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했고, 그중 한 명은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겪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부모는 국가가 요구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중 두 명의 치료사가 부모의 양육 능력을 인정했지만, 당국은 가족의 재결합을 여전히 허가하지 않았다. 스웨덴 측 국선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가족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주 3회 교회에 출석한 것과 자녀에게 특정 복장과 화장품을 금지한 점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부모 측 변호인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족생활 보장)와 제9조(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이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국은 성경 오디오 스토리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종교 자료를 압수했다. 국제 ADF는 “이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삼손 부부는 스웨덴 내 모든 법적 절차가 실패한 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3월 스웨덴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부부는 두 딸을 루마니아 위탁 시스템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 현재 이 부부는 루마니아로 돌아가 유럽 차원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를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스바냐 3:5)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학대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차별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가족을 분리시키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스웨덴 정부를 꾸짖어 주소서. 거룩한 삶을 극단주의로 왜곡하는 부정적 시선이 만연한 이 땅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사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성품에 참여하여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베푸신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모잠비크, 기독교 탄압 심화·폭력·차별 속 ‘종교 자유’ 위기

모잠비크에서 ‘종교 규제 법안’이 기독교 단체들에 불합리한 요구를 가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기독교인 수십 명을 살해하는 등 기독교인을 겨냥한 체계적 박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크리스천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세계복음연맹(WEA)·오픈도어 인터내셔널·모잠비크 복음주의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기독교 단체 등록 시 2,000명의 공증 서명과 지도자에게는 신학 자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슬람 단체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법 통과 전부터 이를 적용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모잠비크 정부에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국제인권규약 제18조와 헌법 제54조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픈도어는 2025년에만 56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아이시스(ISIS·이슬람국가) 계열 무장단체 ‘아흐레 순나 왈 자마앗(ASWJ)’의 공격으로 100여 개 교회가 파괴·폐쇄됐고, 기독교인 13명이 납치됐다고 전했다. 또 9월 한 달 동안 ISIS 모잠비크 지부, ISMP는 북부 카보델가도주에서 기독교인 최소 11명을 총살·참수하고, 주택 130여 채를 방화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로마서 8:18)

하나님, 기독교인을 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살해 등 박해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종교 규제 법안을 추진해 종교적 차별을 가하는 모잠비크를 꾸짖어 주소서. 주여, 속히 이 불의한 법안이 철회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 일로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의 터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망으로 모잠비크의 영혼들을 깨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중국 구금된 목사 딸,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중국 공산당의 지하교회 탄압 속에 구금된 한 저명한 목사의 딸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중국에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원 직원으로 근무 중인 그레이스 진 드렉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 예즈라 진(진밍리) 목사는 최근 광시성 베이하이 자택에서 체포돼 ‘정보망 불법 사용’ 혐의로 베이하이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딸은 “이는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우 정치적인 혐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 목사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로, 2007년 중국 최대 미등록 가정교회 중 하나로 성장한 시온교회 설립을 도왔다.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인 시온교회는 2018년 당국에 의해 공식 폐쇄됐지만, 이후에도 중국 여러 도시에서 성장세를 이어왔다. 현재 약 1만 명의 신자가 줌(Zoom), 유튜브, 위챗(WeCha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 목사가 구금된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약 30명의 시온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브리서 10:38)

하나님, 예즈라 진 목사님을 포함해 중국 여러 도시에서 체포되거나 실종된 시온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법과 규제로 박해를 정당화하는 중국 공산당을 책망하여 주시고, 지금도 정부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십시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복음과 기도로 결론된 예수 생명의 씨앗들을 통해 중국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카그라차리 폭동, 소수종교 차별의 결과



최근 방글라데시 남동부 카그라차리(Khagrachhari)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현지 기독교 공동체가 깊은 불안과 절망 속에 놓여 있다. 교회와 학교가 공격당하고, 여러 가정이 피신한 가운데 젊은 세대는 “미래가 없다”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현지 교회 관계자는 “학교를 다녀도 일자리가 없고, 언제 폭력에 휘말릴지 몰라 두렵다”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소수종교 공동체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초, 카그라차리에서는 토착민 공동체와 평지인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파괴되고, 일부 교인들은 산악지대로 피신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회 연합회는 “수십 가정이 집을 잃고 피해자 상당수가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90%는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약 0.5%에 불과하다. 특히 카그라차리와 랑가마티 등 치타공 힐 트랙스(Chittagong Hill Tracts) 지역에는 차크마, 마르마, 트리푸라 등 토착민 기독교인들이 집중돼 있다. 이 지역은 1997년 ‘힐 트랙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무력 충돌과 토지 분쟁이 반복돼 왔다.

현지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폭력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소수종교 공동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았으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 기독교인들이 교육, 공무원 임용, 토지 소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소수종교 공동체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현지 목사는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을 뿐”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태복음 5:14-15)

하나님,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예수 생명으로 인해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어 차별과 폭력으로 시험 가운데 놓인 방글라데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이들을 돌보사 모든 의심과 불안을 거두어주시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 되게 하소서. 정부가 이 일에 방관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하여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차별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승리하는 교회를 통해 공허하고 목마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 페루, Z세대 반정부 시위 격화...30일 비상사태 선포

페루 정부가 대통령 탄핵 이후 격화된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로 수도 리마의 치안 불안이 심화되자, 집회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부패와 권력 남용 의혹으로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의회에서 탄핵된 뒤, 이를 계기로 정치 불신과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의회의장이던 호세 헤리가 헌법상 승계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인수했으며, 21일 방송 연설을 통해 수도 리마와 인근 카야오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범죄와의 싸움에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겠다"며 "국민의 평화와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비상사태는 22일 0시부터 30일간 시행되며, 이에 따라 리마에서는 집회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경찰 지원을 위해 군이 거리에 배치된다. 페루는 최근 몇 년간 부패와 권력 남용 논란으로 대통령이 잇따라 탄핵되며 극심한 정치 불안을 겪어왔다. 2018년 이후만 해도 여섯 명의 대통령이 중도 하차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았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로새서 1:19-20)

하나님, 페루의 반정부 시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강력범죄까지 증가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위태한 상황을 다스려 주소서. 서로를 향한 다툼과 충돌로 인해 민간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반복되는 탄핵과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 국민의 마음에 공의로우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는 페루 되게 하소서.

▲ 아프간, 오염 식수·저질 식품으로 지난해 10만 명 사망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해 식품과 관련된 직간접적 영향으로 약 10만 명이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아프간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관련 사망자는 9만 7,024명, 설사 환자는 49만 3,068명으로 집계됐다. 식량 전문가 네마트 호시니안은 "설사 환자 중 159명은 입원 후 24시간 내, 147명은 24시간 이상 지나 사망했다"며 주된 원인으로 오염된 식수와 저질 식품을 지목했다. 압둘라 하메드 보건부 식품안전국장은 "식품이 안전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성 질병이나 세균 감염, 암을 유발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수도 카불에서는 보건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저질 식품 65톤을 수거해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카불 시민들은 시장 내 식품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만성적 가난을 겪는 아프간에서는 가뭄과 해외 원조 급감, 아프간인 150만 명 강제송환 등으로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명기 15:10)

하나님, 오염된 식수와 저질 식품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약 10만 명이 사망한 아프간의 참상을 돌아보옵소서. 탈레반 재집권 이후 국제사회에 더욱 고립되어 고통받는 이 땅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몸 된 교회의 기도를 통해 막힌 문과 같은 아프간의 상황을 열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리고 굶핍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선한 손길이 닿게 하여 주셔서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부재로 영혼의 기근을 맞은 아프간의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